

# '쌀값 상승'에 비 재배면적 20년 만에 증가

전국 6045ha 증가 73만2477ha·전남 795ha 감소 15만5435ha  
해남 14.6% 증가 면적 전국 1위...목포 23%·곡성 12.9% 감소  
건고추 도매가격 35.1% 상승 재배면적 전국 7%·전남 8% 증가

올해 비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는 20년 만에 증가했지만 전남은 800ha 가량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1년 비·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 재배면적은 73만2477ha로 지난해보다 0.8%(6045ha) 증가했다. 비 재배면적 증가는 2001년(1.0%) 이후 20년 만이다. 전남 면적은 15만5435ha로, 1년 전(15만6230ha)보다 0.5%(-795ha) 감소했다. 전남 비 재배면적은 전국의 5분의 1(21.2%)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큰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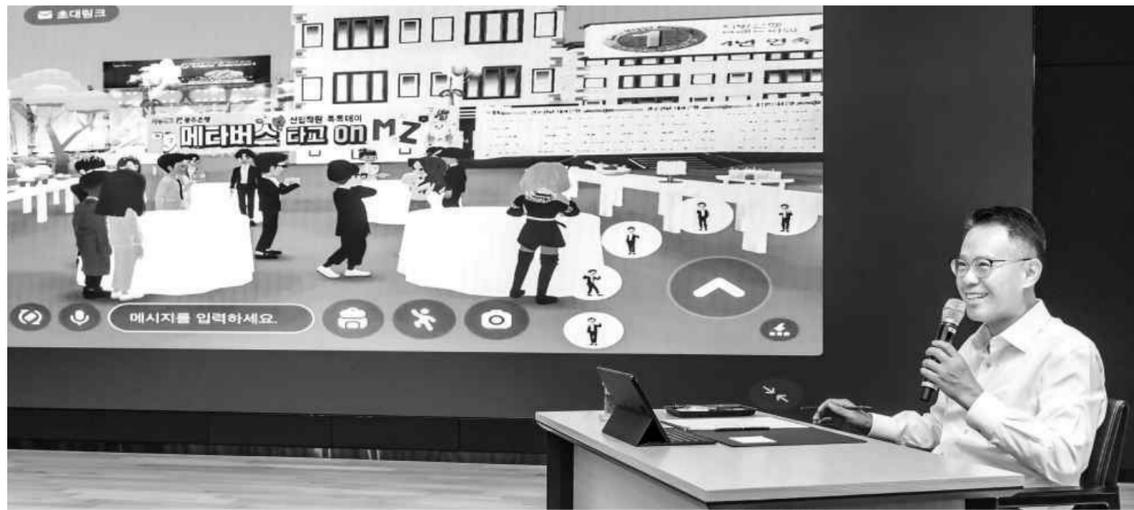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배면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해남으로, 전년보다 14.6%(2703ha) 증가한 2만1170ha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규모다. 해남에 이어 장성(10.3% ↑), 보성(6.8%), 진도(3.6%), 강진(3.2%), 영암(1.2%), 영광(1.1%) 등 7개 군 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순천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4617ha)이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줄었다. 목포는 109ha에서 84ha로, 23.0%(-25ha)나 줄었다.



목포에 이어 곡성(-12.9%)과 담양(-9.2%), 함평·화순(각 -9.0%), 신안(-8.8%), 광양(-8.7%), 완도(-7.9%), 무안(-5.7%), 구례(-5.4%), 나주(-5.1%), 여수(-4.4%), 고흥(-3.6%), 장흥(-2.4%) 등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전국 재배면적이 늘어난 건 쌀값이 오르고 정부의 쌀 적정 생산 유도 정책도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평균 쌀 20kg 도매가격은 2018년 4만5412원, 2019년 4만8630원, 2020년 4만9872원에서 올해 5만8287원으로 뛰어올랐다. 전년보다 16.9%(8415원) 오른 가격이다. 논에서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해 지난해 11월 종료됐다.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 것도 비 재배면적 증가 원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는 현재까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면서 일조량은 많은 등 기상 여건이 좋고 벼 생육이 양호해 평년 대비 포기량이 이삭수, 이삭당 충당량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부

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와 12호 태풍 '오미스'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거쳐갔지만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0월15일 이전에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수확기에 안정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추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고추 재배면적도 늘었다. 전국 재배면적은 지난해 3만1146ha에서 올해 3만3373ha로, 1년 새 7.2%(2227ha) 증가했다. 올해 전남 면적은 5067ha로, 전년(4682ha)보다 8.2%(385ha) 증가했다. 연평균 건고추 1kg 도매가격은 2019년 1만7588원에서 2020년 1만8932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전년보다 35.1%(6645원) 오른 2만5577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추 재배면적은 경북(8751ha)이 제일 넓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메타버스 타고 MZ세대와 소통  
광주은행 송중옥 은행장이 30일 오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올해 입사한 MZ세대 직원 29명과 업무·직장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 행장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특수대리'를 열려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제9대 지역중기회장단협의회장에 임경준 광주전남중기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9대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장에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이 선임됐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중소기업회장 추천과 심사과정을 거쳐 협의회장으로 임경준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 선임 협의회장은 2015년 제10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제7대(2017년~2019년)와 제9대(2021년~2023년)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을 역임하면서 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수립 등 지역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사랑나눔 재단에 3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최근 5년간 1억1402만원을 사회에 환



원했다. 또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임경준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과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지방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판로와 인력수급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국의 지역 중소기업회장들과 지혜를 모으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뜻을 함께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노조협의회 전금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정보기술) 업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하면 지역민의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편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이들은 "지방은행에는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수십 년간 채워 놓고 핀테크 업체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전금법 개정안"이라며 "이는

정부 여당이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금융 붕괴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욱)은 "이번 법 개정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선불충전서비스 이용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를 국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지방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2월부터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보, '3만명 이상 채무감면' 경제적 재기 지원

11월30일까지 특별 캠페인

신용보증기금은 사업 실패 후 과도한 채무로 장기간 고통받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추가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의 상황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년과 달리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상각채권을 원금감면 대상으로 운용하고,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확대하며, 2년 이내에 시효기일

이 도래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무부담액을 완화하는 등 채무자의 상황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는 특별 캠페인 추가 실시로 3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3144.19 (+10.29)
↑ 코스닥	1031.84 (+8.33)
↓ 금리(국고채 3년)	1.398 (-0.010)
↓ 환율(USD)	1167.00 (-2.20)

##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5천만원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중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